

사회 공동체에서 법인식과 법준수의 문제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면서

사회공동체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현실과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법’을 좋지 않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좋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묻는다면, 교회 공동체의 대답은 사회 공동체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현재 거의 모든 민법 교과서는 권리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많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한다(곽윤직·김재형, 165쪽; 김준호, 694-695쪽; 김형배·김규완·김명숙, 122쪽; 박동진, 63-64쪽; 백경일, 639-640쪽; 송덕수, 620-623쪽; 양형우, 132쪽; 윤형렬, 148쪽; 정기웅, 212-213쪽; 지원림, 112-114쪽; 홍성재, 140-142쪽). 조심스럽지만 법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를 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중심이 되는 본문은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성경과 근대법의 관계를 말한다. 둘째, 성경 속의 하나님의 법¹⁾에 대해서 설명한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법에 대한 시각을 말한다. 넷째,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덕법에 대해서 말한다. 끝으로 결론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1) 나는 성경에서 율법(律法)을 잘못된 번역으로 여긴다. 왜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옮겼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서 사람들의 만든 법을 구별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법률’(法律)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율법(律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율법이 일상의 삶과 관련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본성서협회(日本聖書協會)의 신공동역성서(新共同訳聖書, 1988)와 중국의 환구성경공회(環球聖經公會)의 신역본성경(新译本聖經, 1992)도 모두 율법(律法)으로 옮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에는 ‘법’이라는 말이 더 옳다고 여긴다. 율법과 법률처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모두 법(law)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도 로마서 7:22과 갈라디아서 6:2은 모두 ‘하나님의 법’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로마서 7:22과 갈라디아서 6:2에서 말하는 ‘법’을 ‘율법’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쓰고,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는 ‘율법’으로 쓴다는 것을 밝힌다.

II. 성경과 하나님의 법, 계명

1. 성경과 근대법 사상

현대 사회의 많은 법은 근대 사회를 표본으로 한 것이고, 표본의 근간을 합리성에 둔다. 근대사회 이후에 사회 공동체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설명한다. 동양의 법가 사상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²⁾ 그런데 현재에 쓰고 있는 법 제도가 성경의 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대와 현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근대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본질 문제로 ‘인권(human rights)’을 다룬다. 인권의 근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거는 인권에 대한 어떤 근거보다 강력하다.

일반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을 잔인한 것으로 여긴다.³⁾ 출애굽기 21:23-25은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을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⁴⁾ 그러나 이는 고대 사회에서 작은 부상에 대해서 죽이는 보복을 피해자가 당한 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동해보복의 사상은 고대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법이었다.

형사소추에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신명기 19:15)은 오늘날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작동한다. 이혼을 할 때,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 말씀(신명기 24:1-4)도 각국에 이혼을 제한하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포도를 딸 때 또는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떨어진 것을 줍지 않도록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레위기 19:10, 23:22). 돈을 꾸어주어도 돈을 갚도록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담보물의 경우여도 돈을 빌린 채무자를 보호하는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출애굽기 22:25-26).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소비자주를 위한 민법규정(민법 제607조, 제608조)⁵⁾,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보호하는

2) 배원달은 “법가(法家)는 전국시대에 출현하여 유가(儒家)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연법적인 예(禮)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정법적인 법의 우위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배원달, “법가사상에 관한 연구 - 상앙(商鞅)과 한비(韓非)를 중심으로 -”, 안동문화총서 제1권 제1호, 1989, 675쪽.

3)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 디나가 당한 것에 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동해보복’을 고려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새번역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원문에 충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 성경 인용은 새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5) 현행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현행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본으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 각국의 법에서 긴급구조의무를 규정하는 현행법(예를 들어, 상법 제882조-제895조)이 되었다.

2. 성경과 하나님의 법

성경에 있는 법을 바라보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시고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사법(私法)의 중심이 되는 민법에는 두 책임체계가 있다.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맺고,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Contracts, contrats, Verträge)이 첫 번째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불법행위’(Torts, délits, Unerlaubte Handlungen)가 두 번째이다. 계약에서 나오는 책임을 ‘계약책임’이라고 하고, 불법행위에서 나오는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언약(covenant)을 ‘계약(contract)과 구별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언약도 둘 사이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구속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속성에 비추어 보면, ‘언약과 ‘계약의 출발점은 같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은 많이 나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창세기 15:5-21),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는 언약(창세기 21:22-34), 사라의 장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헷족이 맺는 언약(창세기 23:1-20), 야곱과 리반이 맺는 언약(창세기 31:43-56). 이러한 성경의 언약은 계약[법]의 기초가 된다.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창세기 2:16-17),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맺는 언약의 말씀(창세기 9:9-17),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12:1-3; 17:1-10),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26:3-5),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28:13-15)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사고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계약법 영역에서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에 도덕적인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의 격언뿐만 아니라, 계약을 법의 죄사슬로 인식한 로마법의 사고, 계약법에서 인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법을 적용하는 근원으로서 ‘조리’(條理, 사물의 본성)를 인정하는 것, 고의의 불법행위에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96조의 원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법 영역에서 도덕적 가치는 ‘청약의 구속력’의 법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⁶⁾ 법학에서는 올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A.D. 170–223)가 말한 정의 개념을 자주 인용한다. “정의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돌려주려는 영원한 의지”라고 설명한다.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마태복음 22:21; 마가복음 12:17; 누가복음 20:25) 라는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약속으로서 계약⁷⁾은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규범이 된다.⁸⁾ 그런 측면에서 국제조약과 국제협정도 이러한 약속으로서 언약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창세기 21:22–24), 이삭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창세기 31:43–52) 이 맺는 평화협정(창세기 26:26–31)은 이러한 언약에 기초한다.

3. 교회 공동체의 법에 대한 시각

(1)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을 보여준다.⁹⁾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6) 현행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7) Fried 교수가 ‘약속으로 계약’이라는 이론을 주장한다.

8) 국제 조약은 국회에서 승인함으로써 다시 국내법이 된다. (현행 헌법 제6조 제1항).

9)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32번 말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16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 번 말하고, 2:19에서 두 번 말하고, 2:21에서 한 번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6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3:2, 5, 11, 13, 17, 23과 24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말하고, 3:10, 12, 19에서는 두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3:21에서는 세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모두 16번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4:4–5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4:21에서는 두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모두 4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5:3–4, 14, 18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한 번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4번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2, 13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두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은 3:19, 21; 4:4, 5; 6:2이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2:16, 19, 21; 3:2, 5, 10, 11, 12, 13, 17, 23; 4:21; 5:3, 4, 18; 6:13이다. 갈라디아서 3:24; 5:14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지대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명기 29:29, 30:10, 31:11–13, 32:46–47, 33:4; 여호수아기 1:7–8, 22:5, 열왕기상; 열왕기하 23:24; 역대지상 29:15; 역대지하 31:21; 에스라기 7:25; 느헤미야기 8:8–9, 9:3; 시편 1:2, 119:44; 잠언 28:7, 29:18; 이사야서 42:21; 예레미야기 9:13, 31:33; 학개서 2:11과 말라기서 2:7, 9; 4:4이 그렇다. 구약성경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신명기 10:16, 30:6; 예레미야기 4:4, 9:26; 에스겔서 44:7),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7:51과 로마서 2:29가 이런 구약성경의 태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신다(마태복음 5:17–18, 20, 7:12, 22:37–40, 23:23; 마가복 12:30–31; 누가복음 10:27–37, 16:17; 요한복음 7:19, 8:17, 10:34).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바깥의 모습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겉모습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에 담긴 속뜻을 잃는 것을 경계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5:17)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목적과 그 속뜻을 말씀하신다(마태복음 5:21-47).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시는 마지막 대목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5:48).

(2)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말하는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상황에서 적용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사랑으로 설명한다(로마서 13:8-10; 갈라디아서 6:2).

(3)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Sola fide)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도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사고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로마서 5장 1절을 읽고, 루터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한복음 3:15).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포하신다. 그런데 루터도 실천의 측면에서 행위를 강조한다.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관행으로 여기던 악습을 선행으로 장려하던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루터 자신도 ‘선행’이라는 책을 써서, 삶의 실천 측면에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⁰⁾ 그리고 영적 생활의 실천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도덕법’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루터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라는 로마서 7장 22절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아도, 신약성경의 구원의 개념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다. (출애굽기 11:1-14:31).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출애굽기 15:22-26), 굶주린 이스라

10) 루터가 거부한 것은 성유물 수집, 면죄부 구매, 성인 숭배와 성인에 대한 성인 묘지 순례, 사제가 따로 집전하는 사적 미사를 위한 기부,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의 혼인 금지 등의 행위로 공적을 쌓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했다. 루터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선행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좋은 선행과 구별해야 한다고 여겼다. (스콧 헨드리스, 198쪽). 또한 루터의 95개 반박문의 45조와 46조에서 선행을 강조한다.

엘 백성에게 먹을 것(만나)을 주신다. (출애굽기 16:1-36). 또 다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다. (출애굽기 17:1-17).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모이게 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9:4). 그리고 그 뒤에 십계명을 주시고(출애굽기 20:1-17), 여러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 (출애굽기 21:1-23:33).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열개를 보아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4)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훈육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가장 나쁜 지름길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64쪽). 하나님의 법은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복음이 서로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서 ‘율법’으로 옮긴다. ‘율법’으로 옮기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법이라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율법’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법’과 거리를 두는 현상도 만들었다. 앞서 본 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대치시키는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킨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오해를 낳는다. 이는 마르키온의 생각(marcionism)이고, 그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¹¹⁾ 이런 생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뜨린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됨을 강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의 하나 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17:1-26).¹²⁾

(5) 하나님의 법에 말하는 개별 내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

11) Gard는 마르시온(Marcion)의 이원론(dualism)과 가현설(Docetism)을 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 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이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르시온의 교리적인 일탈을 비난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마르시온의 영향은 명시적으로 주장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Gard, 209-210쪽).

12)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같다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전반에 나온다. 요한복음 3장(3:35); 5장(5:17-23, 26-27, 30, 36-37, 43), 6장(6:27, 32, 40, 44-45, 57, 65); 8장(8:16, 18-19, 28-29, 38, 42, 54-55); 10장(10:15, 18, 25, 30, 32, 36-38); 12장(12:26, 49-50), 13장(13:3); 14장(14:6, 7-11, 16, 20-24); 15장(15:1-2, 9-10, 15-16, 24); 16장(16:3, 15, 23, 26-28, 32); 17장(17:1-2, 4-5, 7-10, 18, 21-23, 26); 18장(18:9, 11)과 20장(20:17, 21).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년’에 대한 법(레위기 25:8-55),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법은 그 내용 자체가 축복이다(출애굽기 22:21; 23:9, 12; 레위기 19:10, 33-34; 23:22; 25:6, 35, 47; 신명기 10:19; 14:21; 23:7). 사랑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종과 이웃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셨다는 것이다(출애굽기 20:10). 복음과 하나님의 법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실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갚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20; 요한복음 21:24; 사도행전 1:8).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때 내가 살아가는 척박한 세상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할 수 있다.

4.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관계

지금까지 말한 부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영어 law, 헬라어 νόμος)을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계명’(영어 commandment, 헬라어 ἐντολή)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¹³⁾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3:34-35).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12-17에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 계명’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새 계명’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Keener는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arlson-Thies과 Chang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Chang은 사랑의 새 계명을 계속하는 변화(ongoing conversion)에 대한 소명으로 여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장벽을 허물고, 자신을 다시 낮은 자세로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는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한다. Perry는 사랑의 새 계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Perry, 241쪽).

13) “하나님 사랑”(신명기 6:5)과 “이웃 사랑”(레위기 19:18)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37-40, 마가복음 12:29-31과 누가복음 10:26-28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말하는 구절은 12개이다. (요한복음 1:17, 45; 7:19, 23, 249, 51; 8:5, 17; 10:34; 12:34; 15:25; 19:7).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자(Narrator)는 요한복음 1:17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한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은 두 개념을 상반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은혜의 연속성을 말한다. (Michaels, 90쪽).

② 요한복음 1:45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이 있다.

③ 요한복음 7:51에서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중립의 뜻으로 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맥락을 본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뜻으로 쓴다.

④ 요한복음 7:49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5). 또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한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무리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중립적인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⑤ 예수님은 요한복음 7:19, 23; 8:17; 10:34; 15:25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쓰신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요한복음 7:19).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한복음 7:23).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요한복음 8:17). 이는 신명기 17:6과 19:15를 인용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뜻으로 쓰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ar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긍정의 관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저주로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상황을 풀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다. 아담은 “네가 해야 한다는 것”을 “네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을 고난으로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처음의 흠 없는 온전한 상태로 바꾸셨다.” (Scar, 18쪽).

Loader는 마가, 마태와 누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연속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Loader, 123, 260, 379쪽). Meier는 신약성경에서 쓰는 하나님의 법의 깊은 뜻은 구약성경의 칠십인역 (Septuagint)과 같다고 설명한다. (Meier, 39쪽).

(2)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말하는 구절은 7개이다. 12:49-50; 13:34; 14:15, 21; 15:10, 12. 요한복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① 요한복음 12:49-50.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계명’을 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Ferguson, 168쪽).

② 요한복음 13:34.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요한복음 13:1, 34; 14:15; 15:12-13, 17). 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때문이다. (Thompson, 295쪽).

③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신다. Keener는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תור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요한복음 12:49),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으신다. (요한복음 10:18; 14:31). Lincoln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기능한다. Van der Merwe은 요한복음에 지키도록 명백히 말하는 세 개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아버지가 주신 일을 마치려고 ...’, ‘내 계명을 지켜라.’ (Van der Merwe, 3쪽과 각주 10).

④ 요한복음 14: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고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요한복음 15:9)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기초이다(요한복음 15:12). (Keener, 926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는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은 늘 상호관계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4; 5:23). (Kanagaraj, 141쪽).

⑤ 요한복음 15: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신다.

⑥ 요한복음 15:12.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떠나서 계시지 않을 때, 요한복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날마다 삶과 연결시킨다. 특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제자들의 의무와 연결시킨다. (Michaels, 758-759).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13:8-10)와 갈라디아서(6:2)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과 연결된다.

(3) 구약성경에서 계명

계명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계명’을 쓰고 있는 절을 살펴보면, 모두 74개의 절이 있다.¹⁴⁾ 성경 순서대로 계명이 나온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창세기 26:5
- (ii) 출애굽기 20:6; 24:12; 34:28
- (iii) 레위기 26:3, 15
- (iv) 신명기 4:13; 7:9; 8:2; 10:4; 17:20
- (v) 여호수아기 22:5
- (vi) 열왕기상 2:3; 6:12; 8:58; 9:6; 18:18; 열왕기하 17:34, 37; 18:6; 23:3
- (vii) 역대지상 28:7-8; 29:19; 역대지하 7:19; 17:4; 19:10; 34:31
- (viii) 에스라기 7:11; 9:10, 14
- (ix) 느헤미야기 1:7, 9; 9:13-14, 34; 10:29
- (x) 욥기 23:12
- (xi) 시편 19:8; 78:7; 89:31; 112:1; 119:6, 10, 19, 21, 32, 35, 47-48, 60, 66, 73, 86, 9, 98, 115, 127, 131, 143, 151, 166, 172, 176
- (xii) 잠언 3:1; 13:13; 19:16
- (xiii) 전도서 12:13
- (xiv) 다니엘서 9:4-5

14) 영어 성경가운데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이 직역을 바탕으로 한 성경본으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NRSV를 기준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절을 살핀다.

구약성경에 '계명'을 포함하는 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찾을 수 있다.

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구별하지 않고 쓴다. (창세기 26:5; 출애굽기 24:12; 17:39; 역대지하 19:10; 느헤미야기 9:13-14).

②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출애굽기 20:6; 레위기 26:3; 신명기 4:13; 7:9; 8:2; 17:20; 여호수아기 22:5; 열왕기상 2:3; 6:12; 8:58; 9:6; 17:34, 39; 18:6; 23:3; 역대지상 28:7-8; 29:19; 역대지하 7:19; 34:31; 에스라기 9:10, 14; 느헤미야기 1:7, 9; 9:34; 10:29; 욥기 23:12; 시편 78:7; 89:31; 119:6, 10, 32, 60, 115, 166, 176; 잠언 3:1; 전도서 12:13).

③ 언약과 계명의 관계를 말한다. (레위기 26:15; 신명기 4:13; 7:9).

④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쓴다. (역대지하 17:4; 시편 119:66, 73, 86, 151; 잠언 19:16; 다니엘서 9:4-5).

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말한다. (시편 19:8; 112:1; 119:35, 47-48, 98, 127, 131, 143, 172; 잠언 13:13).

⑥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계명을 말한다. (시편 119:19).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의 많은 요소를 사용한다. (Heilmann, 493쪽).¹⁵⁾ 구약성경에 있는 계명의 용례를 분석하면서, 요한이 사랑의 새 계명을 구약성경의 계명에 관한 절들과 의도적으로 관련하여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5.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도덕법

하나님의 법을 3개의 범주로 나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이다. 이는 근대 사회 이후 각국의 민법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는 제사에 대한 제사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도덕법'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다. 이러한 사고가 1646년의 웨스터민스회 공회에서 인정되었다. (제14장 제5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장전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법의 3중 구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개념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15) 예를 들어, 양떼에 대한 목자에 대한 요한복음 10:1-21은 에스겔서 34:15, 23과 37:24의 요소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

III. 맺으면서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계명으로 폐기되었거나 대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과 하나님의 법이 상반된다는 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34-35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 사이의 관계를 4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첫째, ‘새 계명’은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은 긍정적인 뜻으로 쓴다. 셋째, 요한복음에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넷째,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에 관한 절들은 요한복음의 새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사랑으로 설명한다(로마서 13:8-10; 갈라디아서 6:2). 이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일치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계명’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율법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옳다. ‘율법적’이라는 표현을 많은 경우 부정하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율법적’이라는 말은 부정의 뜻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글을 쓸 때, 어떤 말을 어떻게 쓰고, 띄어 쓰고, 붙여 쓰고 하는 약속이 ‘문법’이다. 문법을 어려워한다. 반대로 문법이 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글을 쓴다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무너지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우월하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그런 상태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태도를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사고로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의 3중 구분에 따른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실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행전 2장 43-47절의 초대 교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5.
- 김준호, 민법강의 제23판, 법문사, 2017.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2016.
- 박동진, 계약법강의, 법문사, 2016.
- 배원달, “법가사상에 관한 연구 - 상양(商殃)과 한비(韓非)를 중심으로 -”, 안동문화총서 제1권 제1호, 1989: 667-690.
- 백경일, 민법총론 제3판, 고래시대, 2022.
- 송덕수, 민법총칙 제6판, 박영사, 2021.
- 스콧 헨드릭스 지음, 손성현 옮김, 마르틴 루터 - 새 시대를 펼친 비전의 개혁자, IVP, 2017.
-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13판, 정독, 2022.
- 윤형렬, 민법총칙 제4판, 법영사, 2013.
- 정기웅, 민법총칙 제4판, 법문사, 2015.
- 지원림, 민법강의 제19판, 홍문사, 2022.
- 홍성재, 민법총칙 제6판, 대명문화사, 2016.
- Barclay, William. *The Old Law & The New Law*. Edinburgh: The Saint Andrew, 1972.
- Beasley-Murray, George R.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6. Grand Rapids: Zondervan, 1999.
- Borchert, Gerald L. *John 12-21: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5b.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2.
- Carlson-Thies, Stanley. “Love God Totally,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How Religious Freedom Enables Us to Obey both Great Commandments in our Time.” *Social Work and Christianity*, 48 no. 2 (2021): 200-216.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1991.
- Casselli, Stephen J. *Divine Rule Maintained: Anthony Burgess, Covenant Theology, and the Place of the Law in Reformed Scholasticism*.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6.

- Chang, William. "The Love Commandment (John 13:34-35)." *Asia Journal of Theology*, 28 no. 2 (2014): 263-282.
- Das, A. Andrew. Paul and the Stories of Israel: Grand Thematic Narratives in Galatians. Minneapolis: Fortress, 2016.
-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8.
- Dunn, James D.G. Romans 9-16,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8B. Nashville: Thomas Nelson, 1988.
- Edwards, Mark. *John: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Oxford: John Wiley & Sons, 2004.
- Estrada III, Rodolfo Galvan. *A Pneumatology of Race in the Gospel of John: An Ethnocritical Study*. Eugene: Pickwick, 2019.
- Ferguson, Sinclair B. *The Whole Christ: Legalism, Antinomianism, and Gospel Assurance: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Crossway, 2016.
- Fried, Charles. *Contract as Promise -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81.
- Fung, Ronald Y. K.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8.
- Gard, Daniel L. "The Church's Scripture and Functional Marcionism."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4 no. 3-4 (2010): 209-224.
- George, Timothy. Galat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0. Nashville: B&H, 1994.
- Haenchen, Ernst, Robert W. Funk and Ulrich Busse. *John 2: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7-21*. Philadelphia: Fortress, 1984.
- Hartley, John E.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Heilmann, Jan. "A Meal in the Background of John 6:51-58."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 no. 2 (2018).
- Johnson, Thomas K. "Law and Gospel: The Hermeneutical and Homiletical Key to

- Reformation Theology and Ethics."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3 no. 1 (2019): 53-70.
- Kanagaraj, Jey J. *John: A New Covenant Commentary*. Cambridge: Lutterworth, 2013.
- Keener, Craig S.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2003.
- King Jr., John B. "Toward law-gospel harmony in Lutheran theology and ethics."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59 no. 3 (2020): 225-232.
- Lincoln, Andrew T.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ew York: Continuum, 2005.
- Loader, William R. G.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 A Study of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2002.
- Longenecker, Ricard N. Galatians. World Biblical Commentary, vol. 41.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Luther, Martin. "The Freedom of a Christian (1520)" in Russell, William R., and Timothy F. Lull, eds.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1989.
- McGraw, Ryan M. "The Threats of the Gospel - John Owen on what the Law/Gospel Distinction Is Not."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 no. 1 (2016): 79-111.
- Meier, John P. *A Marginal Jew -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Volume 4: Law and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2009.
- Meilaender, Gilbert. "The Decalogue as the Law of Christ." *Pro Ecclesia*, 27, no. 3 (2018): 338-349.
- Michaels, J. Ramsey.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0.
- Miller, Clarence H. *Erasmus and Luther - The Battle Over Free Will*. Indianapolis: Hackett, 2012.
- O'Donovan, Oliver. "Flesh and Spirit." In *Galatians and Christian Theology*, edited by Mark W. Elliott, Scott J. Hafemann, N. T. Wright, and John Frederick, 271-84.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 Perry J. Michael.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 In *Christianity and Law*, eds. John Witte, Jr. and Frank S. Alexan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8.

- Räsänen, Heikki Paul and the Law. Tübingen: J.C.B. Mohr, 1983.
- Scar, David P. "The second question and answer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63) clearly used this framework for preaching the Reformation faith."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82 no. 1-2 (2018): 3-18.
- Schreiner, Thomas R. "The Abolition and Fulfillment of the Law in P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1 no. 35 (1989): 47-74.
- Thielman, Frank. *Paul & the Law: A Contextual Approa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94.
- Thompson, Marinanne Meye. *John -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5.
- Van der Merwe, Dirk G. "The concept and activity of 'obedience' in the Gospel of John." *Verbum et Ecclesia*, 43 no. 1 (2022): 1-9.
- Voif, Miroslav *Free of Charge: Giving and Forgiving in a Culture Stripped of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Wallace, Daniel.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7.
- William S. Morrow, *An Introduction to Biblical Law*. Grand Rapids: Eerdmans, 2017.
- Wilson, Todd A. "The Law of Christ and the Law of Moses: Reflections on a Recent Trend in Interpretation."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5 no. 1 (2006): 124-144.
- Wilson, Todd A. *The Curse of the Law and the Crisis in Galatia: Reassessing the Purpose of Galatians*. Tübingen: Mohr Siebeck, 2007.